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오전 (2부) 7시30분
오전 (3부) 10시
오전 (4부) 2시
금요일 (1부) 1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주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예수중심교회

2013년 3월 17일 (제681호)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오전 (2부) 10시
오전 (3부) 2시
저녁에배 7시30분
수요일에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1 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월요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칼럼

4가지 금

세상에는 4가지 금이 있다. 순금, 24K, 18K...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황금, 연금, 소금, 그리고 지금. 당신은 어떤 금을 좋아하는가?

황금은 세상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선호하지 못하고 황금만을 좇다가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 황금에 눈이 멀면 해서는 안 될 일도 서슴지 않는다. 살인, 사기, 매춘, 폐락, 탐닉, 타락 등 세상의 모든 죄악이 바로 여기서 비롯되지 않는가? 그래서 최영장군도 황금보기를 물 같이 하라고 했다. 성경도 말씀하신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연금은 사실 노후에 든든한 배경이다. 그래서 노후를 위해 한두 가지 연금은 필수다. 그러나 연금에 너무 연연하면 일의 노예가 되어 살게 된다. 내일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놓치고 만다. 평생 죽도록 일만 하다 그 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가족들과의 행복한 시간을 맞보지도 못한 채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킨다. 곧 부자로 살지 못하고 부자로 죽는 것이다.

소금은 자신의 짠맛을 통해 부패를 막고 죽은 것을 살린다. 생명을 공급한다. 조직에 새 기운을 불어넣는다. 성경에는 소금에 대한 말씀이 많다. 하나님의 자녀가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래서 썩어저가 세상을 살리라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다. 지금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일하며 누릴 줄 아는 자가 진정 행복한 자다. 지금 사랑해야 한다. 지금 주를 위해 일해야 한다. 내일은 우리의 능력 밖이다. 그래서 지금 (present)이 곧 선물 (present)인 것이다.

나는 4가지 금중에 '지금'이 제일 좋다. 지금을 소중히 여겨라.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라

과테말라시티(Guatemala City) 집회의 대 수확은 헤세(Jesse) 목사의 발견이라 해도 좋았다. 36세의 젊은 나이, 아직 목회 경험이나 연륜이 일천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순수함과 열정, 그리고 날마다 깨닫고 변화하는 모습이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목사님은 과테말라시티 집회를 마치고 다음 집회 도시인 알몰롱가(Almolonga)로 가는 길에 잠시 그의 교회에 들려 헤세 목사와 성도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며 격려했다. 그들은 비록 작은 선물이지만 직접 손으로 뜯은 수예품을 우리 일행에게 전달하며 작

이 지역이 해발 3,000m의 고산지대에 그런지 밤이 되자 기온이 푹 떨어지며 몹시 추워 이것저것 껴입어야 했다. 그러나 추위뿐 아니라 고산지대에 오면 꼭 나타나는 두통 및 소화불량 증상도 힘겨운 매일반이었다.

이튿날 아침, 마리아노 목사는 목회자 세미나에 앞서 방문할 곳과 행사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리아노 목사의 안내로 도시 외곽으로 고개를 넘어 차가 겨우 올라가 멈춘 곳에는 황량한 벌판에 작은 건물만 덩그러니 서있었다. 학교란다. 건물을 들어가니 유치원 연령의 아이들

놓았다.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은 그렇지 않아도 학생들을 위한 서책은 매우 필요한 것이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목사님은 아이들 모두의 머리에 일일이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해주었다.

산에서 내려와 마을 입구에 이르자 브라스벤드의 합주소리에, 폭죽 터지는 소리로 시끌벅적했다. 주민들 모두가 예복을 입고 나와 목사님을 환영하며 도심까지 행진하였다. 도로 연변에는 상가들이 늘어섰는데 모든 상점들의 셔터가 내려져있었다. 맨 선두에는 쪽쪽이 터지고 경찰 선도 차량에 이어 브라스벤드, 그



과테말라 알몰롱가(Almolonga) 집회 광경

별을 아쉬워했다. 알몰롱가로 가는 길은 마치 대관령고개 몇 개를 지나는 것 같았다. 해발 4,000m가 넘는 산들이 즐비한 산맥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고, 그 능선을 따라 산을 오르내리며 가는 길에는 경찰 경호 차량이 지역별로 바통 터치를 해가며 선도해주었다. 산길을 4~5시간 달려 도착한 곳은 과테말라시티 이전에 수도 역할을 했었다는 게살테낭고(Quetzaltenango). 도심의 건물들이 매우 고풍스러운 것이 인상적이었다. 알몰롱가는 그 도시에서 고개 하나를 넘어 인접해있는 인디언 마을이었다.

마리아노(Mariano) 목사는 아내와 자녀 8남매 등 온 가족을 총동원하여 목사님을 환영해주었다.(관련 기사 4면)

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까지 각 교실에서 일렬로 줄을 지어 나와 중앙 홀에 정렬했다.

마리아노 목사의 설명을 듣자니 그에게 받은 지역 재력가가 '집을 사드릴까요? 차를 사드릴까요? 아니면 돈을 드릴까요? 원하는 대로 다해주겠다'는 말에 학생들을 가르칠 학교를 지어달라고 했었다. 그래서 세워진 학교였다. 모든 것이 열악한 조건이었었고, 아이들도 매우 가난해보였다. 목사님은 그들의 환영에 감사하며, 열심히 공부하여 이 나라를 살리는 인재들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공부하는데 필요한 서책들을 구입하는데 쓰라고 1,000\$를 제공하셨다. 그러자 동행했던 김성자 전 도사도 큰 감동을 받았으며 200\$를 내

리고 대한민국과 과테말라 국가 및 게살테낭고와 알몰롱가 깃발, 그리고 목사님을 뒤이어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줄을 이어 행진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이 행사를 위해 모든 상가는 마리아노 목사의 명령에 따라 오늘 하루 철시했다. 연도에도 많은 주민들이 나와 손을 흔들거나 직접 목사님께 달려와 리본을 달아주고 음료수를 전달하며 열렬히 환영해주었다. 해외선교 13년에 이런 영광스런 장면도 처음이다. 수도에서는 대법정의 아들이 영접하더니 이곳에서는 족장의 지위에 있는 마리아노 목사가 전력을 다해 영접하고 있었다. 바로 과테말라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종을 영접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주에 계속)



알몰롱가에 마리아노 목사가 세운 학교 방문



마리아노 목사 가족의 영접



알몰롱가 시민들의 환영축제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고전2:9)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다

목회 28년 동안 제가 깨달은 말씀 중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전9:2)는 말씀입니다.

28년 동안 눈 덮인 산악을 가고, 물 없는 사막을 건넜지만,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정말이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권력자나 재력가, 언론 등을 들어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번 과테말라 집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집회를 하겠다던 모든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고 젊은 해세 목사 혼자서 고군분투하며 집회를 배설했는데, 준비 마지막에 하나님은 정말 생각지 못한 그 도시의 시장이며 대통령 아들들을 보내서 집회 뿐 아니라 경호는 물론 우리가 체류하는 동안 호텔, 음식, 차량 등 모든 것을 적극 지원해주셨습니다.

돌이켜보니 하나님은 항상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벌써 20여 년 전의 일인데요. 처음 일본 집회를 갔을 때, 저는 두 벌 옷도 가져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달랑 성경만 들고 일본에 갔습니다. 물론 동행했던 다른 사람들은 반반의 준비로 짐이 상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도착하니 지금은 목사가 된 당시 김장길 집사가 양미자 권사의 벤츠500을 가지고 나와 대기고 있었고, 하룻밤에 600만원하는 뉴오파니 호텔의 스위트룸을 스텔라 남편이 예약해 놔고, 한 끼에 117만원하는 행락원이라는 일본 전통 음식점을 양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요14:21).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고, 하나님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 산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황급히 이를 멈추게 하시고, 곁의 수풀에 수양을 준비하셔서 대신 그 것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

셨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

게 이르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때 시몬 곧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눅5:5)고 했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예비해놓으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려면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삼상15:22)고 말씀하셨고, 이사가

서 1장 19절~20절에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



반하 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니라”고 했습니다. 순종에 축복이 있습

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다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선(先) 순종하십시오.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이해하게 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풍전등화의 이스라엘 민족을 구할 때, 에스더와 모르드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하수제로 왕을 예비하사 이스라엘 민족을 하만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생각지도 못한 영광을 모르드개가 얻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은 죄로 극형에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한 세 사람,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네고는 자신들을 믿고 총애하던 왕

을 찾아가 살려달라고 애걸하지 않았습

**길없는 것이 아니다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니다. 그들이 의지한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었습

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서 자기들을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단3:28).

네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훼파되었다는 참담한 소식을 접합니다. 이 일로 그는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네헤미야를 예루살렘까지 군대장관과 마병이 호위하게 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재건에 필요한 물자까지 지원해주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네헤미야를 돕기 위해 준비된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권력 있는 자나 돈 있는 자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고전3:21). 또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시37:5-6)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목회 28년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왔습

니다. 앞이 철쭉같이 어두울 때도, 세상 사람들이 답답하고 터디다고 해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왔습

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보지 못한 사람과 만물을 들어 저를 도와주셨고, 우리 교단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다 예비해놓으셨습니다. 문제는 그 열쇠를 손에 쥐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열쇠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감격 놀랄만한 ‘빅 이벤트’를 선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은 그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며, 100% 그 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분을 진정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도 당신을 자녀로 인정하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순종하라 그럼 이해된다

미자 권사가 예약해놓고 있었습

니다. 놀라운 일이었습

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러 온 목사가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없다며 고사했지만, 아무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 된 것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임에 틀림없습

니다(창22:1~14).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한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수11:15).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입성케 하셨습니다.

처녀 마리아는 정말 순종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수태된다는 하나님의 사자 말씀에 그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눅1:38)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큰 축복을 받습

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자입니다. 바다나 고기잡이에 관해서 그는 한마디도 베테랑이었습

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다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선(先) 순종하십시오.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이해하게 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풍전등화의 이스라엘 민족을 구할 때, 에스더와 모르드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하수제로 왕을 예비하사 이스라엘 민족을 하만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생각지도 못한 영광을 모르드개가 얻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은 죄로 극형에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한 세 사람,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네고는 자신들을 믿고 총애하던 왕

::객원컬럼::

그리심산과 에발산

성경에는 두 큰 산이 나온다. 시내산과 갈보리산이다. 시내산은 율법이 온 곳이고, 갈보리산은 복음이 온 곳이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 즉 정죄하는 법이고, 복음은 정죄 받는 자를 용서한다는 기쁜 소식이다. 이것이 시내산과 갈보리산의 차이이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어떻게 다른 산일까? 신명기 11장 26~31절을 보자.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 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레 상수리나무 곁의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니나 반드시 그 것을 얻어 거기 거할찌라"

즉 그리심 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다고 하셨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복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는 자는 스스로 저주를 택하는 것이라 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는 자는 그리심산에 오르는 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에발산에 오르는 자다.

에발산에 오르며 축복 받을 수 없고, 그리심 산에 오르며 저주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축복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아무리 저주하러해도 저주 받을 수 없음은 그가 그리심산에 있기 때문이다. 이 기본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한다. 신명기는 전체가 이 원리를 설명한 책이다. 에발산에서 축복 받기를 에다가 소원해도 그 곳은 축복을 외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건 풍간에 사는 쥐새끼가 깨끗하기를 바라는 것과 비슷하다.

축복 받으려면 기본이 축복을 선포하는 곳에 가야한다. 그리심 산에 올라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한결 음식, 한결음식 정상을 향해 더 큰 축복을 소망하며 올라야 한다.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까지 순종의 길을 걸으셔서 마침내 그리심산 정상에 오르셨다. 약한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마침내 에발산 정상에 올라 주님을 바라보며 흉내 내는 놈이다. 그리심산 정상에는 주님이 계시고 에발산 정상에는 마귀가 있다.

나는 지금 어느 산에 오르고 있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나, 세상을 탐욕하고 있나? 정직한가, 거짓됐나? 헬기가 많은가, 온유한가? 거침조 생활은? 기도 생활은? 그래서 그리심산에 오르고 있나? 에발산에 오르고 있나?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구약의 요나와 신약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에발산을 열심히 오르다가 깨닫고 기겁하고 내려와 그리심산으로 온 힘을 다해 오른 사람들이다. 그런가 하면 복된 그리심산에 머물다 그곳을 버리고 내려와 에발산을 기어오른 구약의 사울 왕과 신약에 가롯 유다 같은 자도 있다.

하나님의 세상 뿐 아니라 세상 안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원칙은 어디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조직 속에 상사에게 순종하면 나름대로 그 조직 속에 있는 그리심산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상사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는 그 세계 안의 에발산에서 고통과 눈치와 불평 속에 울부짖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자는 절대 승진 같은 축복의 기회가 없다.

성도 여러분,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한 장소에 마주보고 서 있는 산입니다. 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심산에 오르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에발산에 오르고 있는지 서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산을 오르려고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애쓰고 있습니까? 에발산에 오르고 계십니까? 잠시 숨을 돌리고 그리심산에 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는지 바라보세요. 그리고 어서 순종의 길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심산을 오르고 계십니까? 더욱 힘써 주님이 계신 곳에 이를 때까지 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시대 목사

레미 두드려야 열린다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060)700-0633
(060)700-02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 예수종심교회

::성경에세이::

깊은 맛이 나는 사람

여보게!

아직은 날이 차갑네. 이럴 때 따뜻한 차 한 잔 어떤가? 두 손으로 따뜻하게 데워진 찻잔을 감싸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마음의 여유라고 할까, 그리움이라고 할까, 아무튼 평온함이 밀려오지. 그리고 목을 타고 내리는 따스한 차 한 모금은 눈물이 날 만큼 나를 향수에 젖게 하지. 내가 나이가 들긴 든 모양이네. 이런 감상에 젖는 걸 보면,

차 애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차는 자고로 깊이 우리나라 한다네. 그래야 차의 깊은 맛이 나오거든. 나는 사람도 그렇다고 보네. 만년수목 깊은 맛이 나는 사람, 깊은 향이 나는 사람이 나는 좋네. 첫눈에 반할 나이가 지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두 번째 볼 때가 첫 번째보다 좋고, 열 번째 만날 때가 아홉 번째 만날 때보다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나는 좋네.

살아보니 생김새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걸 알았네. 생김이 잘 나면 물론 좋지. 첫 인상은 생김새가 거의 좌우하니까. 그러나 생김새가 아무리 잘 나도 천 박한 말을 하고, 머릿속은 빈 강둑이고,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면 좋았던 첫

인상은 깨진 유리조각처럼 산산조각 나고 말지. 그러나 좀 덜 생겼더라도 풍부한 지식이 있어 다방면에 유식하고, 거기에 교양까지 갖췄다면, 더는 예절까지 꼭 뜻한다면, 그 사람의 생김이 어떻든 너무 멋있어 보이고, 머리가 숙여지지 않던가.

여보게!

사도 베드로는 어찌 해아 깊은 맛이 나는지 알고 있었던 듯하네. 베드로후서 1장에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벧후 1:5~7)이라고 말한 걸 보면 말일세. 지식에 인성을 겸하라는 말씀이지. 속에 든 것이 있어야, 몸에 밴 것이 있어야 깊은 맛이 난다는 거야. 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넘치면 그 맛이 가일층 좋아질 걸세.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품위 있고 품격 있는 그릇에 예절이라는 음식을 담으라고 말한대. 품위나 품격은 뒷집 지고 헛기침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지식이 가득할 때 절로 배어나오는 것이지. 일부러 품을

잡지 않아도,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풍기는 맛이랄까 할까. 그것이 예절이라는 그릇에 담기면 얼마나 사람이 멋져 보이겠는가.

요즘 명품 옷이나 명품 가방을 선호하더군요. 그러나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든다고 그 사람의 품격이나 품위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네. 비록 점퍼차림일지라도 풍기는 맛이 있는 사람이 있지. 왜냐하면 내면의 것이 외부로 표출되는 법이거든.

우리 어머니가 간장이나 된장은 숙성되어야 맛이 좋다고 하신 말씀이 문득 떠오르네. 사람에게 있어 숙성은 곧 성숙을 말하지. 성숙이라 함은 곧 무르익은 것을 말하는 것일진대, 우리의 인격이 무르익고, 지식이 무르익으면 음미할수록 깊은 맛을 내는 차와 같은 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나는 어떤 향을 내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인품의 향기를 맡고 있는지 생각해볼아야 할 거야.

우리 깊은 맛이 나는 사람이 되어 보세. 만년수목 멋지고, 만년나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 보세.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이거든.



귀를 기울이세요

중국의 동한 시대에 대교육가로 이름난 양진(楊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 50줄에 들어서 뒤늦게 벼슬길에 오른 그는 뛰어난 학식과 청렴결백함으로 훗날 재상의 반열에까지 올라 가게 됩니다.

하루는 그가 새로운 부임지로 거둔 길에 한 고을에 묵게 되었는데, 마침 그 고을에 지방 관리로 있던 왕밀(王密)이 밤에 양진의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왕밀은 양진의 추천 덕분에 관직에 오를 수 있었던 사람 중 하나였지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왕밀은 조용히 품에서 금덩어리를 꺼내 양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양진은 정색을 하며 그가 내미는 뇌물을 거절했지만, 왕밀은 "지금만 밤이 깊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라며 막무가내로 금덩어리를 양진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양진은 "무슨 말을 하시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당신이 알고, 내가 알고 있지 않소. 그런데 어찌 아무도 모른다고 한단 말이오?"라고 호통을 쳤고, 왕밀은 부끄러움에 몸 둘 바를 몰라 하며 물러났다고 합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내가 안다는 이 사지(四知)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삶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고사성어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전도서의 마지막을 잊지 맙시다.

신재식 전도사

분쟁하는 곳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노 목사 부부와 함께

지난 주 영상을 보고난 후, 이시대 목사가님이 표현한 대로 과테말라(Guatemala)는 이제 복 받을 때가 된 나라다. 그동안의 오랜 슬픈 역사가 이제 충분히 보상을 받을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있지만, 지구 반대편, 동양의 한 작은 나라에서 온 하나님의 종을 이처럼 온 나라가 영접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가만있으실 리 없기 때문이다.

과테말라는 스페인(Spain)으로부터 독립한 이후로도 멕시코(Mexico)에게도 쫓겨 산악지대에 자리 잡았지만, 20세기 초 두 차례의 엄청난 지진과 30년을 이어온 내전으로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나라다.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나라이기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전례는 그들에게 더 없는 소망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이야말로 입지전적 역사를 가진 나라이기에 어디를 가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를 닮으라고 역설하시는 목사님의 메시지는 더욱 힘을 받는다. 60여 년 전, 전쟁의 잿더미에서 전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였던 나라가 오늘날 세계 10대 강국으로 성장했으니 이보다 더 드라마틱한 역사를 써온 나라가 있을까? 원조주혜국에서 당당한 대외원조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이기에 무기력에 빠져있는 과테말라는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충분히 가능성을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목사님의 방문은 그래서 더욱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목사님은 과테말라 도착 일성으로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왔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목사님 개인의 바람을 넘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과테말라로 향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과테말라시(Guatemala City)에서 대통령 아들 오토 페레스(Otto Perez)의 웅숭한 대접도 인상적이었지만, 두 번째 집회 도시인 알몰롱가(Almolonga)에서 인디언 족장의 지위에 있는 마리아노(Mariano) 목사가 우리에게 베풀어준 환대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과테말라는 인구 1,400만 중 약 900만이 인디언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인디언 사회에는 여전히 인디언 부족법이 강력

한 효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 마리아노 목사는 알몰롱가 지역의 족장으로 추대되어 온 시민의 존경을 받고 있는 고로 그의 말 한마디는 그대로 법일 만큼 이 도시에서 그의 영향력은 가히 절대적이다. 목사님을 환영하는 행사를 하기 위해 마리아노 목사는 도심으로 향하는 도로변의 모든 상가 주인들에게 문을 닫고 환영행사에 참여할 것을 명령했다. 행사 당일 현장에 가보니 정말 모든 상가들이 셔터를 내렸을 뿐 아니라 시민들이 예복을 입고 나와 행렬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중죄인에 대한 그들만의 처벌방식이었다. 과테말라 법위에 인디언 부족법이 상위법으로 발동하여 중죄를 범하면 족장의 명령에 따라 공중 앞에서 매질을 하고 명석에 팔이 붙여버린다고 한다. 이런 처벌에 과테말라 정부도 어찌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는 만일 정부나 지역경찰이 간섭했다가는 인디언 사회의 엄청난 저항과 소요를 각오해야 한다. 이로 인해 알몰롱가에는 아예 교도소가 없다고 한다. 형벌 자체가 워낙 무섭다보니 누가 감히 죄를 범할 생각조차 할 수 있겠는가? 마리아노 목사는 자신의 집을 놔두고 속소까지 목사님을 모신 호텔로 옮기고, 늘 지근거리에서 목사님을 섬기는 모습이었다. 알몰롱가를 떠나기에 앞서 마리아노 목사는 아내의 손을 잡고 감동적인 간증을 하였다. 그는 17세에 결혼하여 50여 년을 함께 한 아내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다툰 적이 없다고 했다. 그 비결이 무엇이나고 물었더니 그의 대답은 이랬다.

“남편이나 아내나 그날 상대의 표정이

좋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무슨 사정이 있겠지, 무슨 까닭이 있겠지 하며, 내 기분이 상하기보다는 상대의 마음을 먼저 살피니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한 몸인데 왜 싸웁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싸우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싸워서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또 우리 아이들은 8남매인데 우리가 싸운 것을 본적이 없어서 싸울 줄을 아예 모릅니다. 다 출가했지만 아무도 싸우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지당한 말씀이나 참 실현하기 어려운 이야기였다. 그러기에 그들 부부의 삶이 더욱 감동적이었다. 마리아노 목사가 지역민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이유가 이로써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목사님은 알몰롱가를 떠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돈이 많은 것도 행복이 아니요, 명예를 가진 것도 행복이 아니다. 저렇게 오순도순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가는 인디언 가정의 가장 행복한 게 아닐까 한다. 잠언도 말씀하지 않는가? 욕심이 가득하고 서로 다투는 가정보다 비록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서로 화목한 가정이 낫다고 말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욕心に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은가?”(잠17:1).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은가?”(잠15:17).

가슴이 따뜻한 인디언들의 정감어린 환대를 뒤로 하고 산을 넘으며 참으로 생각이 깊어진 하루였다.

즐겁고 유쾌한 학습법-수학

::Edu Section::

많은 학생들이 공부에 흥미를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수학 때문이다. 그래서 각 연령에 맞는 수학 학습법을 찾아보았다.

초등학생들의 경우, 4학년이 되면 수학에 실증을 내기 시작한다. 단원별 내용이 점차 복잡해지고 논리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고 식이 길어지면서 암산이 점차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수학을 지루해하거나 어려워하는 초등학생들을 둔 부모님이라면, 과감하게 책의 난이도를 낮출 것을 권한다.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쉬운 책으로 공부하면 뒤쳐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초등교과과정에서 선행은 1달만 부지런하게 공부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 많은 초등학생들이 싫어하는 문장제 문제도 쉬운 책에 있는 것부터 연습을 하면 자신감이 생긴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문제 풀이 과정을 꼼꼼하게 적는 연습이 필요하다.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연산 과정에서 실수를 많이

하고 +, - 부호를 잘못 적어 오답률이 높아진다. 간단한 계산일수록 연습장에 적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학년이 올라갈수록 식이 길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빨리 쓰면서 푸는 연습을 해야 한다. 특히, 서술형의 배점이 높으니 평소 준비하도록 하자. 내신을 준비할 때에는 시험 범위를 꾸준히 반복해서 풀어야 한다. 학교별 난이도에 차이는 있지만 70점~80점대의 학생들은 모르는 문제보다 실수가 많아서 점수가 낮은 경우가 많다. 그러니 매 시험마다 5~8권 정도의 문제집을 푸는 것이 좋다. 문제집은 구멍이 높은 것을 택하라.

고등학생은 내신과 수능이라는 두 가지 범주의 공부를 동시에 섭렵해야 한다. 수학에 자신감이 부족한 학생은 수학 익힘책을 반복해서 풀도록 하자. 대부분의 내신 시험은 익힘책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다. 수능은 꾸준한 연습만이 방법이다. 간혹 학생들은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수학

을 못한다 생각하고 인강, 대형 강의, 과외 선생님에게 반복해서 설명을 들으려고 한다. 하지만 그 방법은 적절하지 못하다. 예제, 유제부터 연습 문제까지 난이도별로, 2점, 3점짜리 문제부터 4점짜리까지 하나씩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학생 스스로 찾아야 한다. 10-가, 나는 중등수학과 많이 연계되어 있다. 내용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등 과정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수1과 미적분, 확률, 통계 등은 소단원별 개념 이해와 대단원별 문제 유형의 흐름을 동시에 파악하는 것이 좋다. 방정식과 함수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수학 공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노력과 끈기이다. 손에서 연필을 놓지 말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풀고 고치는 것이 수학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다. 노력한 자에게 불가능은 없다.

학원장 오지유 집사

임마소 뉘파라 송이지 물어대니

청이의 종소리인양

음메-음메-

들녘에 깔리누나

아-

노을 지는 석양이

왜 이따지도 갈 길을 재촉하고

朋友